

		<b>보 도 자 료</b>		 
		<b>배포 일시</b>	<b>2021. 7. 14.(수)</b> <b>총 5매</b> (본문 2, 참고 3)	
<b>담당 부서</b>	해양생태과	<b>담당 자</b>	• 과장 이재영, 사무관 이재호, 주무관 전상훈 • ☎ (044)200-5310, 5318, 5316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팀	<b>담당 자</b>	• 팀장 황인서, 차장 김영남 • ☎ (051)400-7961, 7970	
<b>보 도 일 시</b>		2021년 7월 1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4.(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이슬이 모여 숲을 이룬 곳, 가로림만을 만나보세요

### - 해수부, 갯벌이야기책 ‘가로림만 갯벌’ 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충남 가로림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7월 15일(목) ‘갯벌스토리텔링북-가로림만 갯벌’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해양생태 전문가들이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해양생태계 자료와 관련 인문, 사회, 역사 등의 자료를 모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해 왔으며, 현재까지 강진도암만, 남해 강진만 갯벌, 인천 무의도 갯벌, 강화도 갯벌 등을 주제로 총 8권의 책자가 발간된 바 있다.

올해 발간된 책자는 ‘이슬이 모여 숲을 이룬 곳’이란 뜻을 가진 가로림(加露林)만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반폐쇄성 내만으로,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이자,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등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지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가로림만 갯벌을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지정 당시 어업활동 제한 우려 등으로 제외되었던 어촌계 어업구역을 추가하여 총 92.04km<sup>2</sup>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책자에서는 가로림만의 형성과정부터 갯벌에 서식하는 159종의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점박이물범(*Phoca largha*)과 흰발농게(*Austruca lactea*) 등 서식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갯벌의 건강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굴포운하 건설 등 가로림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및 국민들의 봉사활동 등 관련 이야기들도 상세히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주요 연구기관에 비치하고,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도 게재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 책자가 가로림만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 책에 실려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대한 이해와 보전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목차

### 발간사

이슬이 모여 만든 숲 / 한기준이사장 4

### 가로림만의 과거와 현재

#### 가로림, 가로림만

가로림만의 형성 11  
가로림만 일대의 간척사업 12  
생태공원으로 변모 꾀하는 가로림만 14

### 이루지 못한 5백년의 꿈, 굴포운하

#### 이루지 못한 5백년의 꿈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23  
항해가 어려워 난행량 26  
하류의 재치있는 운하설계 29  
평 대신 댐, 의항운하와 관목운하 41  
해로에 육로를 더한 설창육수 제안 43  
발혀지는 안홍량 사고, 보물창고로 44

### 온국민이 닦아 낸 검은 눈물

#### 삼성-허베이스퍼리트호 원유 유출 사건

꿰어진 예인선, 크레인을 놓쳤다 49  
허베이스퍼리트호와 예인선단의 충돌상황 58  
사상 최대의 피해, 11개 시군 특별 재난지역 선포 59  
3개시도에 걸친 대형 피해 63  
한국인의 저력, 죽은 바다를 살려냈다 67  
봉사나가던 그 비탈길, 태안을 상징하는 산책로로 72  
자원봉사자의 땀이 배어있는 태안 솔향기길 73

### 가로림만의 환경

#### 자연 상태 잘 보존된 가로림만

바다와 육지의 교류, 만(Bay) 81  
북쪽으로 입구가 열린 유일한 만, 가로림만 82

### 가로림만의 저서동물 94

### 가로림만의 염생식물 109

### 가로림만의 해양보호생물 139

### 가로림만 사람들

호산록, 조선시대의 서산기록 153  
호산록으로 본 가로림만 주변의 목장 주민 156  
보물단지 가로림만 158  
독살에 별창났네 160  
태안 감장굴과 서산 어리굴젓 162  
달콤한 바다향, 감태 164

